

조세희 소설에 나타난 사회생태학적 담론에 관한 고찰

김춘규*

|| 차례 ||

- I. 서론
- II. 선행 연구 검토
- III. 산업사회의 현실과 사회생태학적 사유
- IV. 결론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조세희 작품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그의 작품에 나타난 사회생태학적 의식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물론, 사회생태학을 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산업근대화의 부산물로 대두된 생태문제에 문학적 대응으로 출현한 생태문학을 두고 생태지향, 사회생태, 환경, 녹색, 생명, 환경생태, 생태주의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사회생태학'에 초점을 맞추어 난쟁이로 상징되는 소외계층과 환경파괴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서의 사회생태학, 오염된 공간과 대안사회를 위한 제안까지 논의하고자 한다.

더하여 조세희의 소설을 통해 사회생태 문제가 소설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어 있고, 사회생태 위기에 대해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우선 사회생태 문제가 발생하는 본질적인 원인에 접근하기 위해 소설 속 인물과 인물간의 구도를 분석하였다. 조세희는 그의 작품에서 '난쟁이'로 상징화 된 소외계층과 그 반대편에 위치한 지배계층의 대립을 통해 1970년대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해부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조세희의 소설에 나타난 생태 의식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생태 소설의 특성과 문학사적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 환경오염, 생태계, 산업사회, 사회생태학, 자본주의, 계층구조

* 순천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강사.

I. 서론

오늘날 세계는 심각한 환경오염(environmental pollution)에 직면해 있다. 환경문제는 단순히 생태계의 파괴나 환경의 오염 문제라는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경제·사회 문제와 맞물려 있다. 때문에 계층구조(hierarchy)와 지배 속성, 인간중심(anthropocentrism)주의의 문제와 결부시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말 이후 산업근대화 정책을 추진했고, 그 여파로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했다. 그에 따라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 위주의 성장 정책에 대한 사회생태학적 성찰을 하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사회생태학적 사유가 깊이 있게 표상된 한국 소설의 출현은 90년대에 이르러 본격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시기에 이르러 사회생태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가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생태 의식이나 환경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다루기 시작한 정찬의 『별들의 냄새』, 『산다화』, 한승원의 『연꽃바다』 등을 만날 수 있어서다.¹⁾ 차봉준은 그의 논문²⁾에서 한국 소설사에서 환경문학, 혹은 생태문학의 출현 시기를 7·80년대 이전까지로 소급하려는 시도의 연구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역시 80년대 이전 시기의 한국 소설에서도 생태적 사유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며, 특히 1930년대 창작된 이효석과 정비석의 몇몇 단편들을 분석한 결과 “인간 삶의 부조리와 비정상성을 건강한 자연의 생명성 속에서

1) 김옥동은 김원일의 『도요새에 대한 명상』이 생태 의식이나 환경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작품이라면 한승원의 『연꽃바다』는 이 문제를 좀 더 형이상학적 측면에서 다룸으로써 김원일의 생태 소설을 한 단계 끌어올린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옥동, 『문학 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1998, p.177.

2) 차봉준, 『한국 현대소설의 생태적 가능성-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중심으로』, 『문학과 환경』제14권 1호, 문학과 환경학회, 2015, p.170.

복원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생태적 사유의 단초를 제시”³⁾ 한다고 논의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사회생태문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생태문학의 방향을 설정해 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문학과 생태(계)의 문제를 논의할 때, 가장 혼란스러운 점은 ‘생태학’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생태학(Ecology)은 생물학의 한 분야로 1866년 헤켈이 그리스어의 오리코스(oikos, 집)와 로고스(logos, 논리)를 어원으로 해서 만든 개념이다. 환경과 유기체 대한 총체적 학문을 지칭하다가 이후 유기체와 환경, 상호 간의 복합적 관계를 다른 학문으로 그 의미가 확장된다.⁴⁾ 생태학 개념은 1970년대 이른바 생태주의 혹은 환경생태 운동과 더불어 일종의 사회운동에 응용되면서 낭만주의, 아나키즘, 사회주의, 페미니즘, 동양사상과 심층생태론, 환경생태론, 생태여성학, 생태사회주의와 같은 다양한 사상과 결합하고 정치, 종교, 사회, 과학 등의 분야에 영향을 끼쳤다.

본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1970년대 이후 발표된 한국 현대소설 가운데 조세희의 소설을 중심으로 사회생태문제를 주제(소재) 한 작품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사회생태소설의 특성과 문학사적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조세희는 작품을 통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고발함과 동시에 그

3) 차봉준, 『1930년대 소설과 생태적 담론: 자연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문학과환경』 제13권 1호, 문학과환경학회, 2014, p.212.

4) 생태학과 관련된 논의는 1960년대 말부터 여러 유파의 등장과 함께 나타났다. 식량과 자원 문제를 다룬 신멜더스주의자와 신마르크스주의자, 에너지 문제에 주목한 생태론자(반핵주의자)와 기술론자(친핵론자), 생태마르크스주의자,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 이후 마르크스 사상을 새롭게 재평가하는 논의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이평진, 『1970년대 사회생태론적 사유와 정치의식 연구: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중심으로』, 『문학과 환경』 제13권 1호, 문학과 환경학회, 2014, p.161.

저변에 사회생태학적 사유를 심층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또한 조세희의 작품을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 하는 주요한 이유는 ‘환경파괴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서의 사회생태학’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이런 사회생태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환경파괴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서의 사회생태학, 욕망과 지배 속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 오염된 공간과 대안사회를 위한 제언 등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이런 사실에 주목할 때 조세희의 소설은 근원적으로 사회생태학적 사유를 함유하고 있는 작품이다.

II. 선행 연구 검토

조세희에 대한 선행연구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집중되어 있다. 난쟁이가 일가로 대변되는 소외 계층의 삶과 노동문제 등이다. 이를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리얼리즘이나 모더니즘을 중심으로 한 작품 분석. 둘째, 대립적 구조에 관한 연구. 셋째, 형식이나 기법 혹은 문체적 특성에 대한 분석. 넷째, 사회학적 해석과 환상기법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조세희 소설에 나타난 생태학 선행연구

1	구자희, 『한국 현대 소설에 나타나는 생태위기 양상의 사회생태론적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제20집, 2006.
2	김경수, 『소설의 정치학-조세희론』, 『현대소설연구』제16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2.
3	김병익, 『난장이, 혹은 소외집단의 언어』, 『상황과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1982.
4	김선건, 『1970년대 이후 노동소설에 나타난 계급의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2.

5	김성기, 『1970년대 한국소설에 대한 문학사회학적 일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6	김종성, 『한국 현대소설의 생태의식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7	박진영,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비극성과 공포의 수사학, 『민족문화연구』제46권, 2007.
8	신명직,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연구:환상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9	우찬제,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리얼리티 효과』,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
10	이소연,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연구』, 『문학과 환경』제7권 2호, 문학과 환경학회, 2008.
11	이세영, 『사회변동이 소설 형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12	이은실, 『한국 현대 생태소설 연구』, 덕성여대 박사학위논문, 2003.
13	이평전, 『1970년대 사회생태론적 사유와 정치의식 연구: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중심으로』, 『문학과 환경』제13권1호, 문학과 환경학회, 2014.
14	차봉준, 『조세희 소설의 생태학적 상상력 연구』, 『현대소설연구』제34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15	차봉준, 『한국 현대소설의 생태적 가능성-조세희의『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중심으로』, 『문학과 환경』제14권1호, 문학과 환경학회, 2015.

물론, 선행연구 가운데 사회생태학에 관한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부분이 작가의 사회생태학적 사유를 주요한 요소로 설명하기 보다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적하는 부차적인 의식으로 설명하고 만다. 김종성은 그의 저서⁵⁾에서 “난쟁이”라는 심벌과 그의 특유한 단문의 문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을 같은 차원에서 양립·대립시키는 관점에서 조세희의 독특한 세계관과 방법론에 주목했다.

이평전⁶⁾은 1970년대 산업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를 사회생태론적 사유로 접근했다. 그는 노사대립이나 노동쟁의, 임금문제뿐만 아니라, 물질적 풍요가 가져온 문명 속의 정신적 궁핍과 인간성 상실, 소득 분배의 불균형

5) 김종성, 『한국 환경생태소설 연구』, 서정시학, 2012, pp.2-28.

6) 이평전, 앞의 논문, pp.161-177.

에서 비롯된 계층의 대립, 소비 경제 체제와 인구 팽창, 감성의 쇠퇴, 삶을 위협하는 제도의 억압과 인권 같은 다양한 문제를 사회생태학적 입장에서 현실 대응과 그 양상을 탐구했다. 차봉준⁷⁾은 1970년대 한국 사회의 고도 산업화가 필연적으로 발생시킨 환경파괴를 논의하였다. 동시에 계층 간의 대립과 소외를 극대화하는 심층생태학적 분석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 외에도 구자희⁸⁾는 한국 현대 소설과 사회생태론의 이론적 변용을 시도하였다. 위의 논문들은 사회생태학 사유의 기원을 밝히는 데 유효한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조세희는 노사대립이나 노동쟁의, 임금문제 뿐만 아니라 물질적 풍요가 가져온 문명 속에서 정신적 궁핍과 인간성 상실, 소득 분배의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생태학적 사유의 필요성을 역설한다.⁹⁾ 달리 말하자면,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충동에서 비롯된다. 지배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어떤 것이든 계층구조를 통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자행된다. 따라서 인류 사회에서 계층구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인류의 지배와 착취는 영속될 것이며, 그것은 결국 생태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조세희는 바로 이런 사회생태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1970년대 사회를 해부하고 있다. 그는 산업 근대화란 명목으로 자행된 개발독재에 대한 비판 의식에서 출발하여 생태의식을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또한 모든 문학작품은 사회적·문화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

7) 차봉준, 「조세희 소설의 생태학적 상상력 연구」, 『현대소설연구』제34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pp.163-179.

8) 구자희, 「한국 현대 소설에 나타나는 생태위기 양상의 사회생태론적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제20집, 2006, pp.605-636.

9) 김춘규, 「김원일 소설에 나타난 생태학적 담론에 관한 고찰-도요새에 관한 명상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제60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p.231.

용의 결과이며 그 자체가 복합적인 문화적 객체이다.¹⁰⁾ 더하여 환경·생태¹¹⁾·생태(계)¹²⁾는 자연, 사회, 인간, 계급 등의 다양한 문제와 결합하며 이론적 변형과 실천적 운동을 이끌어 왔다. 이처럼 환경문제와 사회생태학에 대한 다양한 개념과 이론을 참고¹³⁾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생태학 이론의 국외 논저

1	Herbert Marcuse, 『정신 분석학적 생태학: 생태학과 현대 사회 비판Ecology and the Critique of Modern Society』, 문순홍 편『생태학의 담론』, 솔, 1999.
2	Murray Bookchin, 『사회 생태론“What is Social Ecology?” in Modern Crisis』, 문순홍 편, 『생태학의 담론』, 솔, 1999.
3	C. J Kerbs, 『크랩스 생태학Ecology』, 박봉규 외 옮김, 일신사, 1987.
4	Dominique Simonnet, 『생태학 L'ecologisme, Que sais-Je?』, 정문화 옮김, 한마당, 1984.
5	Donald Worster, 『생태학 그 열림과 닫힘 역사Nature's Economy: A History of Ecological Ideas』, 강현 외 옮김, 청하, 1989.
6	D. Pepper, 『현대환경론The Roots of Modern Environmentalism』, 이명우 외 옮김, 한길사, 1990.
7	Ernst Ulrich von Weizsacker, 『환경의 세기Das Jahrhundert der Umwelt』, 권정임 외 옮김, 생각의 나무, 1999.

10) 이선영, 『사회문화적 비평 서설』, 『문학비평의 방법과 실체』, 삼지원, 1993, p.61.

11) 생태라는 말은 자연과 다른 의미로 쓰인다. 생태(eco)라는 말은 ‘집’ 또는 ‘사는 곳’의 뜻을 갖는 그리스어 oikos에서 유했고, 여기에 지식을 뜻하는 logos를 더해 생태학(ecology)이 되었다. 유진 오덤에 따르면 생태학이란 ‘생물에 뿌리를 두고 계속 부상하면서 생물, 물리적 환경, 인간사회에 대한 연구들을 통합하는 보다 독립된 분야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로서의 환경, 즉 거주지(oikos)에 관한 학문으로 말하자면, 자연과 사람의 상호관련성을 다루는 기초과학이다. 김희진, 『최명희 『혼불』에 나타난 생태적 상상력』, 『문학과 환경』12권 2호, 문학과 환경학회, 2013, p.47.

12) ‘생태(계)’는 생물이 처해 있는 환경 조건에 따라 알맞게 적응해 있는 상태로, 생물 집단 내에서 개체 간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토양환경, 대기조성, 기상 등의 자연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종족을 유지해 나간다. 생태(계)는 이렇게 이루어진 동식물 집단의 생활 상태를 의미한다. 이평진, 앞의 논문, p.161.

13) 김춘규, 위의 논문, p.232.

8	Eugene C. Hargrove, 『환경윤리학Foundations of Environmental Ethics』, 김형철 옮김, 철학과 현실사, 1994.
9	Hilary French, 『세계화는 어떻게 지구환경을 파괴하는가Vanishing Borders』, 주요섭 옮김, 도요새, 2001.
10	Joseph R. Desjardins, 『환경윤리Envirnmental Ethics second edition』, 김명식 옮김, 자작나무, 1999.
11	Luke Martell, 『녹색사회론: 현대환경의 사회론적 이해Ecology and Society: An Introduction』, 대구사회연구소 환경연구부 옮김, 한울, 1998.
12	Maria Mies & Vandana Shiva,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 손덕수 외 옮김, 창작과 비평사, 2000.
13	Murray Bookchin, 『사회생태론의 철학The Philosophy of Social Ecology: Essays on Dialectical Naturalism』, 문순홍 옮김, 숲, 1999.
14	Vandana Shiva, 『살아남기 :여성, 생태학, 개발Staying Alive: Women Ecology and Development in India』, 강수경 옮김, 숲, 1998.
15	World watch Institue, 『2009 지구 환경보고서, 기후의 역습State of the world 2009: Into a Warming World』, 생태사회연구소 옮김, 환경재단 도요새, 2009.

위의 사회생태학 이론처럼 자연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착취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으로부터 벗어나 인간 이외의 생명체, 생물(생태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을 가진 피조물 각각의 고유한 가치와 자기 목적을 강조하고 있다.

북친(Murray Bookchin)은 “환경문제, 사회구조 그리고 사회이론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유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그의 여러 저서에서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북친이 내세운 답론은 변증법적 자연주의 또는 생태적 변증법이다. 다시 말해 생태학의 철학적 기초는 변증법적 자연주의인 것이다.

국내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출현하기 시작한 생태문학 혹은 환경문학¹⁴⁾이 1970년대 후반에 조세희와 김원일에 의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14) 환경오염이나 자연 파괴의 실상을 고발하고 이러한 오염과 파괴가 인간의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지를 일깨우는 문학을 환경문학이라 규정하고, 반면 생태문

한승원의 『누이의 늑대』(1980)는 농촌의 가난하고 무식한 가족들을 등장시켜 농약 오염문제를 다뤘고, 최창학의 『해변의 묘지』(1981)는 문학적 형상화가 안 되었던 원폭피해자 문제를 사람들이 거의 가지 않는 묘지(집)를 무대로 하여 소외의식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조세희는 연작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1977)에서, 환경문제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및 국가 관리 주의적 생산관계에 수반되는 사회적 문제라고 보고,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생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성각은 『강을 위한 미사』(1999)와 『동강은 황새여울을 안고 흐른다』(1999)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강원도 영월 동강댐 건설문제를 균형감각 있게 주제화 했다. 이윤기는 『나무가 기도하는 집』(1999)에서 사람들과 세상일에 상처 받은 영혼들이 위로 받는 곳이 숲이며, 숲을 지키는 것이 우주의 집을 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⁵⁾

1960년대 말부터 출현하기 시작한 홍성원·정을병·김용성의 생태문학 혹은 환경문학들이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 조세희·김원일·한승원·홍성암·박덕규·최성각·강기희·이윤기·정찬 등에 의해 심화 확대되어 왔다.

학은 생태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쪽에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전제 아래 “환경문학이 사실적이고 실제적이라면 생태문학은 좀 더 철학적이고 이론적”이라는 이분법적 잣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김병익, 『난장이, 혹은 소외집단의 언어』, 『상황과 상상력』, 1979, p.60. 김용민 역시 환경문학과 생태문학의 구분에 대해 “두 문학을 엄격히 구별하는 관점은 문제를 지나치게 세분화시켜서 문학조류에 대한 성격규명이나 개관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새로운 생태사회를 세우는 데 문학이 맡아야 할 과제를 매우 축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두 개념을 하나의 커다란 범주 속에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차봉준, 앞의 논문, p.173.

15) 김종성, 『한국 현대소설의 생태의식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p.32.

Ⅲ. 산업사회의 현실과 사회생태학적 사유

북친(Murray Bookchin)은¹⁶⁾ 생태학을 일차 자연과 이차 자연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일차 자연은 생물학적인 자연이고, 이차 자연은 문화적인 자연, 사회적인 자연, 정치적인 자연이다. 그는 오늘날 이차 자연의 개입을 받지 않은 일차 자연이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페퍼(David Pepper)는 환경(사회생태)론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째, 환경운동의 초창기에 나타난 사고방식이나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한 분류방식이다. 이것은 환경론자들의 신념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론을 크게 기술지향주의와 생태지향주의로 구분했다.

둘째, 사회과학적 이론에 의한 분류로 사회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환경(사회생태)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수립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환경론을 기초한 다원론과 대립되는 마르크스주의적 사고에 기초한 급진적 견해로 구분된다.

셋째, 인간의 자연관에 따른 근본적인 철학적 입장에 기초를 둔 분류이다. 즉, 자연은 생물학적 생존권을 갖는 특성상 인간과 자연을 일종의 윤리적 관계로 보았다.¹⁷⁾

1. 환경과괴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서의 사회생태학

조세희는 자선 대표 작품집『풀밭에서』에 실린 단편소설 20편¹⁸⁾을 발표

16) Murry Bookchin, 『사회생태론의 철학 The Philosophy of Social Ecology: Essays on Dialectical Nathuralism』, 문순홍 옮김, 숲, 1999, pp.164-166.

17) 김춘규, 『한승원 소설에 나타난 생태학적 양상 고찰』, 『문학과 환경』제12권 2호, 문학과 환경학회, 2013, p.33.

했다. 그는 알레고리와 상징, 낯설게 하기, 장르 삼입과 장면의 중첩 등 환상기법을 두드러지게 사용하여 타자의 전복과 해방을 통해 리얼리티를 강화했다.

특히,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에서 묘사되는 불구성의 증폭은 ‘수저 이미지’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환경(사회생태)의 변질은 언제나 자본주의에 내재하는, 바로 그 무한한 팽창과 자본 축적의 시스템으로서의 생활 법칙이 낳은 산물”¹⁹⁾이라는 북친의 이론과 일맥상통한다.

왜냐하면 일차적으로 생계유지를 의미할 그 수저가 삶의 목적으로 치환되어 삶 자체를 유린하는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물론 큰아들 영수의 꿈 대목이긴 하지만 매우 끔찍한 비유가 아닐 수 없다. 수사학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난장이성의 징표라 할만하다.

난장이의 큰아들 역시 아버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산업사회의 본격적인 노동자 1세대인 영수는 난장이인 아버지의 생각을 진전시키고자 했다. 아버지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법률 제정이라는 불가피성을 감수해야 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법률 제정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라면 기존의 세상과 다를 게 없다고 영수는 생각한다. 그는 “교육은 수단을 이용해 누구나 고귀한 사랑을 갖도록”하여 “누구나 자유로운 이성에 의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 말한다.

나는 은강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머릿속부터 변혁시키고 싶은 욕망을 가졌다. 나는 그들이 살아가는 사람이 갖는 기쁨 · 평화 · 공평 · 행복에 대한 욕망

18) 본고에서는 조세희 자선 대표 작품집 『풀밭에서』, 청아출판사(1994)에서 발행한 책을 텍스트로 하여 연구하였다. 이하 본문에서는 소재명과 쪽수만을 적는다.

19) Murray Bookchin, 『사회생태주의란 무엇인가: 녹색 미래로 가는 길 Remaking Society: Pathway to a Green Future』, 박홍규 옮김, 민음사, 1998, p.209.

들을 갖기를 바랐다. 나는 그들이 위협을 받아야 할 사람은 자신들이 아니라
는 것을 깨닫기를 바랐다.〔「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p.137.〕

영수의 변혁 욕망은, 그 꿈과 희망은 아버지가 그랬듯이 현실에서 충족
될 수 없었다. 노사 협상이 완패로 끝난 다음, 영수는 신도 잘못을 저지르
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각이 통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이 현실은 곧 분노와 적의로 옮겨간다. 적의의 끝, 분노의 절정에서
영수는 자본가를 죽이고 사형선고를 받는다. 역시 비극적인 결구로서, 끝
내 난장이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에서는 노사대립이나 노동쟁의, 소득 분배의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와 조세희의 사회생태학적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회생태학이 생태계의 파괴를 계층구조에서 찾는 것과 무관하지 않
다. 결국 도시와 농촌, 도시의 중심부와 주변부는 위계구조를 만드는 기제
로 작용한다. 작가는 그것을 사회생태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나는 자를 대고 끝이 뾰족한 삼각형을 그렸다.

“숙제를 해.”

“이게 숙제야요.”

아버지는 내가 그린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먹이피라밋야요.”

내가 말했다.

“그 효용이 뭐냐?”

“생태계를 설명하는 그림야요.”

“설명을 해 봐라.”

“이 맨 밑이 녹색 식물로 일단계야요. 이 식물들을 먹는 동물이 이단계이고,
식물을 먹는 동물을 잡아먹는 작은 육식 동물이 삼단계, 또 이것을 잡아먹는

큰 육식 동물이 맨 위의 사단계야요.”

삼남매가 똑같이 은강 그룹 계열 회사의 공장에 훈련공으로 들어갔다.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 pp.118-119.)

난장이와 그 아들의 대화를 통해 작가는 1차 영양 단계를 바탕으로 그 위에 쌓아 올린 생태학적 피라미드 구조가 사회 계급의 피라미드로 곧바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런 사회 계급의 분할이 중국에는 사회 생태환경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북친(Murray Bookchin)은 이 과정을 권력 추구의 엘리트들이 사회적 위계를 구축한 다음 그것을 자연에 투사하고, 인간에 의한 착취가 심화되면서 자연을 지배하고자 하는 노력을 낳고 그 결과 자연의 지배가 무부별한 자연의 착취로 이어져 생태위기를 낳았다고 설명한바 있다.²⁰⁾ 북친이 말하는 이차 자연은 광의의 사회, 제도, 문화를 말하는 것으로 전개 과정에서 유기체들의 세계를 질적으로 승화시키기도 하고 파괴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에서의 이차 자연은 은강이다. 그곳은 ‘위계 질서, 사회적 계급, 국가, 사유재산, 시장경제’ 등의 특징을 나타낸다. 경영인들은 은강의 환경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개발과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용하고 변형시켰다.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노동자의 마지막 귀착지로 설정된 ‘은강’ 공업단지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오염된 자연환경을 통해 생태 위기의 극단을 보여준다. 공장의 굴뚝에서 토해내는 연기는 대기를 오염시키고, 모든 공장이 쏟아내는 폐수와 폐유는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켜 생태계를 파괴했다. 작가는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열악

20) Murry Bookchin, 앞의 책, p.63.

한 노동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사회생태와 자연 생태계를 동일한 지점에 놓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조세희는 인간 사회에 내재하는 ‘위계의 지배관계’에 의해 자연이 파괴된다는 생태론적 사유를 통해 인간의 지배와 자연 파괴가 ‘지배’와 ‘위계’라는 사회적 유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구조가 타자의 이익을 위해 사회 구성원을 억압하고, 자연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는 또 다른 지배형태를 조장한다는 관점에서 1970년대 사회모순을 읽고 있다.

다시 말해 은강 공업단지의 독과점 대기업들은 하천이나 대기에 제대로 정화처리를 하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오염물질 정화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그런데 독과점 대기업의 경영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직접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이 된다.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잘못은 신에게도 있다』에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가 바로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진다. 이는 인간의 지배 속성에 대해 주목한 작가의 사회생태학적 인식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작가는 두 작품을 통해 경제정의나 사회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환경문제의 해결은 부질없는 꿈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지점이 바로 조세희의 사회생태학적 사유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2. 욕망과 지배 속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

위계는 피지배집단과 지배집단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다. 우월한 집단인 지배집단이 열등한 집단인 피지배집단에게 복종을 명령하는 것이다. 그들(은강그룹 회장+회장의 아들 경훈)은 ‘윤리적 인간중심주의자도 아니고 윤

리적 생태중심주의자²¹⁾도 아닌, 성장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인물이다. 달리 말하자면 지극히 인간중심주의적 윤리에 고착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인간 중심주의란 ‘자연적 본성’을 지칭하는 의미와 동일한 것으로서, 오직 인간만이 우주 속에 유일한 관계의 대상이며, 때문에 다른 생물종이라든가 자연 일반은 단순히 도구적 수단으로만 기능할 뿐이라는 사유를 절대화 시킨다.

생태 중심적 윤리적 입장에서 이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유 체계이며, 당면한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넘어서야 할 세계관임에 분명하다. 즉, 주변 자본주의에서 산업화가 꽤 진전된 단계에서 나타나는 관료적 권위주의는 사회질서와 경제성장에 압도적으로 주력하는 하나의 특수한 국가유형이다.²²⁾

배경열²³⁾은 그의 논문에서 재벌과 국가의 근대화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한 마디로 ‘잘 살아보자. 잘 사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희생하자’는 것이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잘 살려고 하는가? 하나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힘의 철학은 가난에서

21)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자연을 보살피고 원상회복시켜야 하는 것이 당면의 과제가 되었다. 박이문은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는 생태적 위기를 다루는 당위적 문제들이 곧 윤리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보았고, 윤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불어 살고 있는 타자에 대한 관심과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아울러 윤리적으로 관계할 ‘타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윤리적 인간중심주의자’와 ‘윤리적 생태중심주의자’로 구분하는데, 즉 ‘타자’의 범위가 다른 사람에 국한되느냐, 아니면 인간을 포함한 다른 생물종으로까지 확대되느냐가 양자를 구분하는 잣대로 작용한다. 차봉준, 「1930년대 소설과 생태적 담론: 자연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문학과 환경』 제13권 1호, 문학과 환경학회, 2014, p.209.

22) 한상진, 「관료적 권위주의의 문제점」, 한상진 편저, 『제3세계정치체제와 관료적 권위주의』, 한울, 1984, p.181.

23) 배경열, 「생태문학의 관점에서 김원일의 『도요새에 관한 명상』 연구」, 『서강대학교 생명문화 연구원』, 2013, p.144.

벗어나고자 하는 대다수의 국민을 설득할 수 있었고, 또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물질적 풍요만이 지상 최대의 과제요,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파행적인 삶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조세희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생명체’가 아닌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일만 하게 하는 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공장에서 먹는 밥이나 음료수에 그 약을 넣어야죠.”(『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p.183.)

노동자를 기계 부속품 정도로 생각하는 은강그룹 회장의 아들인 경훈의 사고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거기다가 은강의 하늘을 뒤덮고 있는 공장의 매연과 공장이 쏟아내는 폐유와 폐수는 은강의 생태계를 파괴시켰고, 살인적인 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 장시간의 노동 등은 노동자들의 육신을 서서히 파괴시켰다. 급기야 생태계 파괴와 육신의 파괴는 노동자들의 정신마저 황폐화하게 했다.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는 은강그룹 경영자 막내아들 ‘나’(경훈)를 화자로 내세우고 있다. 화자의 숙부가 은강그룹의 회장으로 착각한 영수의 칼에 맞아 죽은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재판 과정이 소설의 중심구조이다.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는 방청석에 앉아 재판과정을 지켜보는 경훈의 상상이 재판과정의 묘사 사이에 삽입된다.

‘나’(경훈)는 공판정에 들어가기 전 법원 매점의 공중전화기 앞에서 자본가에 대한 적의와 반감을 드러내는 노동자들의 노랫소리를 듣는다. ‘나’(경훈)는 노동자들이 단순히 열등감 때문에 자본가 계급을 증오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촌은 미국에서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왔다가 경훈과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재판과정을 방청한다. 화자의 숙부를 죽인 범인은 은강방직 기사로 일하던 난쟁이의 큰아들 영수다.

변호사는 “조합원들의 노력을 사용자가 짓밟아 노사 협조를 일방적으로 파괴함은 물론 산업 평화까지 스스로 깨뜨려 노사의 불이익을 초래함을 묵도하는 순간 은강그룹을 이끌어가는 총책임자인 회장을 살해하겠다는 우발적인 살의를 품게 된 것이 아니냐”고 난쟁이 큰아들에게 묻자, “그것은 우발적인 살의가 아니었다”고 난쟁이의 큰아들은 대답한다. 변호사는 은강그룹 회장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난쟁이의 큰아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파괴하는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요지의 변론을 한다.

공판이 끝나고 사촌형은 떠났다. 재판 결과 난쟁이 큰아들에게 사형이 선고된다. ‘가시고기’의 상징성이 제일 잘 드러난 대목은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꿈속에서 그물을 쳤다. (...)한 때의 고기들이 내 그물을 향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고기들이 아니었다. 앙상한 뼈와 가시에 두 눈과 가슴지느러미만 단 큰가시고기들이었다. 그물을 걷어 올렸다. 큰가시고기들이 수없이 걸려 올려 왔다. 그것들이 그물코에서 빠져나와 수천 수만 줄기의 인광을 뿜어내며 나에게 뛰어올랐다. 가시가 몸에 닿을 때마다 나의 살갗은 찢어 졌다. 그렇게 가리 가리 찢기는 아픔 속에서 살려 달라고 외치다 켰다.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pp.185-186.)

위의 인용문은 ‘나’(경훈)의 꿈 내용이다. 은강 공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큰가시고기가 되어 ‘나’(경훈)의 꿈속에 나타난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물과 가시고기는 분명히 대립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은강그룹의 경영자에게 노동력을 팔아 살아가는 노동자들은 양상한 뼈와 가시만이 있는 큰가시고기들로 묘사된다. 말 그대로 먹고 먹히는 관계다. 그리고 위계와 불평등의 행위를 서슴지 않는 은강그룹의 경영자들은 그물로 묘사된다. 살찐 물고기를 얻기 위해 수천, 수만 마리의 양상한 가시고기들을 만들어낸 은강그룹 경영자들에게 양상한 뼈와 가시에 두 눈과 가슴지느러미만 단 큰가시고기들은 인광을 뿜어내는 그들의 살갓을 찢는다. 이 장면은 위계와 불평등의 관계,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단절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북친(Murray Bookchin)은 “모든 생태문제는 사회문제에서 발생했다”²⁴⁾라고 정의했다. 사회생태학의 가장 중요한 공헌의 하나가 “사회를 자연에 대립시키는 기본적인 문제점이 사회와 자연의 ‘사이’에서가 아니라, 사회 발전의 ‘내부’에서 형성 된다고 하는 관점”이다. 그는 “사회와 자연의 분단 근원을 사회 영역 속에서 찾았다. 즉 인간과 인간의 뿌리 깊은 대립 속에 두고 있는 것”²⁵⁾ 이다. 달리 말하자면 사회 내의 계급적 활동과 그로 인한 소외는 바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에서 연유하며,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듯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반사회생태학인 것이다.

조세희는 ‘난쟁이’로 상징화된 소외계층과 그 반대편에 위치한 지배계층의 대립을 통해 1970년대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해부하고 있다.

이제 조세희의 작품에 나타난 공해와 병리적 신체에 새겨진 사회생태학적 사유의 흔적에서 그 대안사회의 가능성을 탐문할 차례이다.

24) Murry Bookchin, 앞의 책, p.199.

25) 김종성, 앞의 책, p.139.

3. 오염된 공간과 대안사회를 위한 제언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생명은 자기 지시적인 존재이고, 인류세계는 공생하며 상호 관계적이라고 생각한 북친(Murray Bookchin)은 그것을 다양성 속의 통일 원칙 혹은 전일성이라고 개념화 한다.²⁶⁾ 그는 사회생태학의 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전일성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생태의식을 구현하는 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병리적 공간은 1970년대 산업화의 가치 이면에 놓인 진실, 즉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파괴의 흔적을 보여준다. 이른바 심층생태론²⁷⁾의 비인간중심주의의 실천 전략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생태계 속에는 상당한 자율성이 주어지지만 유기체들은 전체라는 기능 속에서 조화롭게 통일되어 상호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전체의 특성은, 그 부분들의 상호 작용과 상호의존에 의해 발생한다. 달리 말하자면 구성원들 간의 ‘살면서 살리는(Live and let live) 공생관계이다. 즉, 모든 생명체가 상호 협력을 해나가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조세희의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에 등장하는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을 생각조차 못한다. 영수는 “사회적 변화를 성취할

26) 문순홍, 『생태학의 담론』, 숲, 1999, p.109.

27) 네스(A. Naese)는 환경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생태학이 하나의 단순한 과학으로서, 이른바 ‘가치중립적’ 이론이나 ‘사실’ 영역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를 뛰어넘어 대지에 대한 지혜를 행동 규범과 결합시키는 더 광범위한 철학적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하나의 규범 체계이자 세계관인 심층 생태 운동은 과학으로서의 생태학에서부터 논리나 연역 등을 통해 직접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심층 생태 운동의 교의는 생태 과학적이라기보다 기본적으로 생태 철학이다.” 네스는 이 철학을 ‘생태 지혜(ecosophy)’로 지칭하는데, 여기서 ‘생태 지혜’는 ‘생태학적’이라는 뜻의 ecological과 윤리, 규범, 규칙, 그리고 실천에 관한 지혜라는 뜻의 그리스어 sophia에서 유래한 sophy를 결합해 네스가 주조한 용어로서 심층생태론의 철학적 바탕을 형성한다. 이평진, 앞의 논문, p.169.

수 없거나 전혀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공장 노동자들을 각성케 하여 노조를 만들고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은강그룹 회장에 맞서 노동운동을 펼쳐나간다. 그 과정에서 은강그룹 회장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한다. 뿐만 아니라 영수의 동생 영희가 일하는 은강방직도 3교대와 철야근무라는 최악의 노동조건에 직면해 있다. 급기야 영수는 은강그룹의 회장을 죽이려다가 그의 동생을 죽이고 재판을 받게 된다.

조사회는 은강과 대조적인 공간으로 독일 하스트로 호수 근처에 있다는 릴리푸트 읍을 ‘나’를 통하여 영희에게 이야기 한다. “여러 나라의 난장인들이 그곳에 모여 살고 있다. 키가 칠십팔 센티미터로 세계에서 제일 작은 사나이인 터키인 난장이라도 그곳으로 이주했다.” 라는 대목에서 난쟁이가 가죽은 환상의 세계를 동경하고 꿈꾸며 회색빛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그것은 난쟁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은강과 그들이 동경하는 릴리푸트 읍으로 선명하게 대비된다.

난장이들에게 릴리푸트 읍처럼 안전한 곳은 없다. 집과 가구는 물론이고, 일상생활 용품의 크기가 난장이들에게 맞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곳에는 난장이의 생활을 위협하는 어떤 종류의 억압·불공평·폭력도 없다. 권력을 추종자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고 무서운 법을 만드는 사람도 없다. 릴리푸트 읍에는 전제자가 없다. 큰 기업도 없고, 공장도 없고, 경영자도 없다. 여러 나라에서 모인 난장이들은 세계를 자기들에게 맞도록 축소시켰다. 그들은 투표를 했다. 그들은 국적 따위는 무시했다.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 p.115.)

위 인용문의 릴리푸트 읍은 대안사회의 이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난쟁이들이 사는 은강은 노동자와 생태계가 가혹하게 고통 받는 반사회생태적인 공간이다. 대안사회인 릴리푸트 읍은 북친(Murray Bookchin) 제

시하는 리버테리언적 지역자치주의(Libertarian municipalism)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리버테리언적 지역자치주의는 생태적인 방향성을 갖는 경제에 대해 전반적인 접근을 촉진시킨다.²⁸⁾

리버테리언적 지역자치주의(Libertarian municipalism)는 작은 가족 공동체나 사적 거주로 구성되는 공동체로 태양 에너지와 같은 생태기술, 유가농업, 인간적인 규모의 생태적인 사회 공동체를 목표로 한다.²⁹⁾

나는 그곳 난장이들은 혁명가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제 자녀들의 출산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는다. 거인들이 사는 곳에서는 너무 불행했었다. 지금 릴리푸트 읍의 난장이들은 자기들의 특수 의료 문제, 사회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재정 문제 등을 토의하고 있다.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는 극히 행복하다”고 마리안느 사르 읍장은 말했다.(『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 pp.115-116.)

북친(Murray Bookchin)은 주권의 위협이 아닌 양도형식의 참여 민주주의적 대의원 제도와 연방제 구조를 가진 소규모의 직접정치를 지향하는 대항 공동체를 제시한다.³⁰⁾ 난쟁이 가족이 꿈꾸는 그곳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영희는 릴리푸트 읍을 동경하고 그곳에서 아버지가 살았어야 했다고 말한다. “영희의 이야기를 나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본문의 첫 구절처럼 영수는 영희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은강 노동자 가족의 생계비』의 대단원에서 영수는 영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로 한다. 릴리푸트 읍에서는 착취와 박탈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28) 김종성, 앞의 논문, p.49.

29) Murry Bookchin, 앞의 책, pp.250-253.

30) 김종성, 앞의 책, p.113.

그는 또 하나의 릴리프트 읍을 생각한다.

이처럼 1970년대는 환경오염 피해가 공업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차원의 환경규제나 기업의 오염방지시설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³¹⁾ 작가는 오염된 공간에 놓인 노동자들이 어떤 비극적 상황에 놓이게 하는가를 릴리프트 읍을 통해 대안사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산업화시대의 환경이 결국 ‘자연 생태계’로 확장되고, 마침내 인간의 삶 자체를 파괴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조세희의 사회생태학적 사유라고 할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사회생태문제를 표상하고 이에 대한 생태적 사유를 드러내고 있는 조세희 소설의 특성을 고찰함에 목적을 두고 전개되었다. 1970년대 한국 사회의 고도 산업화가 필연적으로 발생시킨 환경의 파괴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동시에 계층 간의 대립과 소외의 극대화라는 사회생태학적 문제 인식도 내포하고 있다. 때문에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의 텍스트 읽기가 가능하다. 조세희는 그의 작품을 통해 당대 환경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생태문학은 현대 사회의 병폐를 생태학적 인식으로 바라보게 해주고 환경오염과 파괴가 인간을 황폐화시키는 것은 물론 생태계의 멸망을 가져올 것이라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의 계

31) 1977 공해방지법을 폐지하고 환경관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킨 환경보전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산업에 대한 정부의 환경규제가 형식적인 상황에서 산업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급적 지배가 자연에 대한 지배로 이어지고 그것이 자연의 파괴를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조세희는 그의 연작 소설을 통하여 황폐화된 자본주의의 사회병리를 고발하고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자연에게 가해지는 파괴는 인간의 욕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인식은 조세희의 소설에서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한다.

또한 소설속의 인물들이 자아를 인식하고 주체성을 깨닫는 ‘생태(계)와 하나 되기’의 과정을 통해 인간과 사회생태의 화합을 유도하고 있다. 조세희의 소설은 생태문제나 사회생태를 비록 우회적인 수준에서 표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촉발한 원인을 환경파괴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지배 속성의 욕망, 오염된 공간과 대안사회를 위한 제언을 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철학적, 이론적 성찰로 보아 사회생태소설이다.

게다가 근대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여러 환경오염의 문제, 노사갈등, 빈부의 문제 등, 1970년대 한국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화합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세희는 난쟁이로 상징되는 소외계층을 내세워 단순히 자연환경의 파괴뿐만 아니라 노동현장의 노동조건과 자본가의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 등을 비롯한 계층구조의 문제까지 고려하여, 사회생태 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물과 가시고기”의 대립적 상황, “거인과 난쟁이”의 대립적 경계를 허물고 진정한 인간의 모습, 인간다운 삶의 공간을 꿈꾸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조세희의 연작소설집에 수록된 단편을 중심으로 사회생태소설의 특징을 분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세희의 작품은 산업사회의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생태학적 담론을 잘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조세희, 『풀밭에서』, 청아출판사, 1994.

2. 논문 및 단행본

구자희, 「한국 현대 소설에 나타나는 생태위기 양상의 사회생태론적연구」, 『한국현대 문학연구』제20집, 2006, pp.605-636.

김종성, 「한국 현대소설의 생태의식 연구: 조세희, 김원일, 한승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pp.1-151.

_____, 『한국환경생태소설연구』, 서정시학, 2012.

김춘규, 「한승원 소설에 나타난 생태학적 상상 고찰」, 『문학과 환경』제12권 2호, 문학과 환경학회, 2013, pp.27-42.

_____, 「김원일 소설에 나타난 생태학적 담론에 관한 고찰-도요새에 관한 명상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제60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pp.231-247.

김희진, 「최명희 『혼불』에 나타난 생태적 상상력」, 『문학과 환경』제12권 2호, 문학과 환경학회, 2013, pp.47-62.

문순홍, 『생태학의 담론』, 숲, 1999.

배경렬, 「생태문학의 관점에서 김원일의 『도요새에 관한 명상』 연구」, 『서강대학교생 명문화연구원』, 2013, pp.126-155.

이선영, 「사회문화적 비평 서설」, 『문학비평의 방법과 실체』, 삼지원, 1993.

이평진, 「1970년대 사회생태론적 사유와 정치의식 연구: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중심으로」, 『문학과 환경』제13권1호, 문학과환경학회, 2014, pp.161-177.

차봉준, 「1930년대 소설과 생태적 담론: 자연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문학과 환경』제13권 1호, 문학과 환경학회, 2014, pp.209-227.

_____, 「조세희 소설의 생태학적 상상력 연구」, 『현대소설연구』제34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pp.163-179.

_____, 「한국 현대소설의 생태적 가능성-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중심으로」, 『문학과 환경』제14권 1호, 문학과 환경학회, 2015, p.170.

한상진, 「관료적 권위주의의 문제점」, 한상진 편저 『제3세계정치체제와 관료적 권위

주주의』, 한울, 1984.

Murray Bookchin, 『사회생태주의란 무엇인가 Remaking Society: Pathway to a Green Future』, 박홍규 옮김, 민음사, 1998.

_____, 『사회생태론의 철학 The Philosophy of Social Ecology:Essays on Dialectical Nathuralism』, 문순홍 옮김, 솔, 1999.

Murray Bookchin, 『사회생태주의란 무엇인가: 녹색 미래로 가는 길 Remaking Society:Pathway to a Green Future』, 박홍규 옮김, 민음사, 1998.

Theodor Wiessengrund, Adomo, 홍승용 역, 『미학이론』, 문학과 지성사, 1985.

Abstract

A study on the social ecological discourse appears
in the novel Jo se-hee's

Kim, Chun-Gyu

In this paper, the subject of discussion in Jo se-hee work to review and evaluate the ecological and social awareness shown in his work. Of course, looking at the ecological perspective varies. The ecological problems that emerged as a by-product of industrial modernization with the ecological literature emerged as a literary response ecology-oriented, social ecology, environmental, environment, ecology, environmentalism, such as the research literature from various perspectives It came.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problem to the hierarchy, including inhuman treatment of the capitalists and the working conditions of workers in the workplace, focusing on disadvantaged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symbolized by the dwarf, as well as social ecology literature.

In addition to ecological and social problems through social ecology Jo se-hee's novel it is how the expression in the novel, will examine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presenting some alternatives and that the social ecology literature about the ecological crisis.

This paper is a review year to evaluate the nature and meaning of social ecology fiction historical literature by examining the social ecology of Consciousness in the Fiction jo se-hee.

Key Word : Environmental, Ecological, Industrial Society, Social ecology, Capitalism, Hierarchy

김춘규

소속 : 순천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강사

전자우편 : kcg9797@nate.com

이 논문은 2015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5년 8월 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8월 10일 게재 확정됨.

